

## 청소년

# 약물남용 대책



이경호

보건복지부 약정국장

### 1. 서언

최근 청소년 약물남용이 저연령화, 다양화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청소년 비행도 증가하는 등 청소년 약물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청소년들이 주로 남용하는 것은 술, 담배이나 일부 문체 청소년들이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물질과 진통제, 진해거담제 등 일반 의약품의 부작용을 이용하며, 극소수 청소년들은 필로폰 등 마약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들은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무지와 호기심으로 약물남용을 시작하며 처음엔 작용이 약한 약물을 사용하다가 점차 강한 약물로 바뀌게 되며, 현실 판단력 및 자제력 상실로 인한 비행 범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약물남용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청소년 약물남용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에 대한 범정부적, 범사회적 차원의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범정부적, 범사회적 차원의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2. 현황

청소년범죄의 최근 동향을 보면 '90년(105,567명) 이후 '92년(99,301명)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3년(110,640명) 이후에는

청소년범죄가 점차  
홍포화하고 있으며,  
이 중 학생범죄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소년범죄 중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년의 52.1%에서 '94년 64.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청소년범죄 중 강력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년에는 5.93%였으나, '94년에는 6.40%로 증가하는 등 청소년범죄가 점차 홍포화하고 있으며, 재산범(財産犯)의 비율은 '90년의 23.9%에서 '94년의 29.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1. 약물사용 평생 경험률

(단위: %)

구분 종류	중학교			고등학교			소년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술	42.8	35.0	38.5	76.9	68.6	72.8	91.0	94.4	91.4
담배	14.7	8.6	11.4	48.8	12.7	31.0	94.1	90.7	93.7
수면제	1.1	2.3	1.8	7.6	6.6	7.1	15.7	46.3	19.2
각성제	2.3	7.2	5.0	13.4	14.9	14.1	9.7	16.7	10.5
진해제	1.7	2.3	2.0	1.9	6.2	4.0	9.3	15.1	9.9
본드	0.3	0.6	0.5	3.1	1.4	2.3	47.9	56.6	48.7
가스	0.6	0.8	0.7	2.5	1.4	1.9	43.1	48.1	43.7
대마초	0.1	0.3	0.2	1.3	0.0	0.7	12.5	11.1	12.3
신경안정제	1.2	3.1	2.3	4.7	4.5	4.6	8.5	20.4	9.9
필로폰	0.2	0.4	0.3	0.5	0.7	0.6	1.4	1.9	1.5

자료: 한국청소년학회, 1993.

표 2. 현재의 약물사용 경험률: 30일내

(단위: %)

구분 종류	중학교			고등학교			소년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술	11.0	12.5	11.8	49.4	31.9	40.6	80.5	81.6	80.8
담배	5.9	3.8	4.8	34.8	6.5	20.5	94.0	81.6	91.0
수면제	0.5	1.1	0.9	2.7	2.1	2.4	10.9	8.3	10.3
각성제	0.5	1.8	1.2	3.1	2.6	2.8	10.9	8.3	10.3
본드	0.1	0.4	0.3	0.8	0.7	0.7	50.7	30.6	45.7
가스	0.1	0.1	0.1	0.8	0.8	0.8	26.2	28.6	26.8
대마초	0.0	0.1	0.1	0.5	0.2	0.3	3.4	2.1	3.1
신경안정제	0.1	0.1	0.1	0.5	0.2	0.3	4.1	14.6	6.7
필로폰	1.1	1.8	1.5	1.9	2.1	2.0	2.0	0.0	1.5
진해제	0.7	1.1	0.9	0.9	2.0	1.5	6.7	10.2	7.5

자료: 한국청소년학회, 1993.

---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를 보면(표 1, 2 참조) 음주, 흡연이 대부분이지만 타약물로의 전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남용 행태가 처음엔 작용이 약한 약물에서 시작하여 점차 강한 약물로 진행하며 더 큰 환각을 위해 한 가지 약물보다는 여러 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위의 <표 2>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교생의 2% 정도와 소년원생의 43~48% 정도가 본드나 부탄가스 등 흡입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약물들 외에 요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본드, 부탄가스 등의 유해 화학물질인데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이들 흡입사범은 '92년에 전년 대비 78% 가량 급증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94년에 일시 감소후 '95년에는 전년 대비 41.1%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의 본드 흡입사범수('95년 6,277명)와 성인 중 필로폰 사용 사범수('95년 1,682명)를 비교해 본다면 청소년의 본드 흡입사범 숫자가 월등히 많고, 최근 몇 년간 그 증가율도 더 크다.

'95년도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 화학물질 흡입사범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가 79.1%를 차지하고 있어 10대 후반 청소년들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5세 이하도 8.7%나 된다. 직업별 현황을 보면, 무직(50%), 학생(31.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각물질 흡입사범 중 19세 이하 청소년 점유율이 약 80%를 차지한 것을 보면 무직자는 문제 학생으로 제적을 당한 청소년이거나 가정사정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므로 추정된다.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비행관계에 대한 '94년도 청소년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약물남용 청소년은 약물을 남용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음주, 흡연, 무단결석, 패싸움, 금품 갈취, 절도 등의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 약물남용은 부모등 가정의 배경에도 원인이 있지만 비행 친구, 학업 성적 등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약물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2% 정도와 소년원생의 43~48% 정도가 흡입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사회·가정의  
관심 및 해결의지  
부족을 들 수 있다.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 상습사용자의 비행발생빈도:	단순사용자의 2.3배 미사용자의 7.4배
• 약물사용자의 폭력 등 대인비행 빈도:	미사용자의 1.9배
• 복합약물사용자의 비행총동: 한 가지 비행발생:	약물사용자의 1.4배 한 가지 약물사용자의 2.7배
• 친구 동반 약물사용자의 대인비행:	단독사용자의 11배
• 야외 사용자의 심각한 대인비행:	집안사용자의 3.5배

3. 원인 및 문제점

사회·가정의 관심 및 해결의지 부족

이처럼 최근에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 증가하고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사회·가정의 관심 및 해결의지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미흡하여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출입을 묵인하기도 하고, 불량 만화나 불량 비디오를 판매,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부족하며, 학교 주변 유흥업소 단속 및 학교·학원 주변 불량배 단속도 미흡한 실정이다.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개선 방안 등 제도개선 정책도 미흡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청소년 단체가 중심이 되는 비행 청소년 결연 사업과 지역 중심 청소년 상담 활동도 미미하다.

약물남용 시작은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 등에 의한 것이 많으며 보통은 약물남용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의 생활지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전문성 결여로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고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미비한 실정이다. 즉,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수련 기관이 없으며,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일부

---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지만 시대 변화 및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약물 구입경로에 대한 접근 용이성

청소년 약물남용자들의 약물 구입 경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현기, 몽롱 등의 부작용이 있는 진해거담제,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을 남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판매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텍스트로 메트르판 제제의 경우 다량 복용을 막기 위해 정제의 크기를 4배 이상 크게 하였으나 이를 과량 구입후 갈아서 쉽게 복용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약물 과복용 방법을 추구하고, 문제가 된 약물을 규제하더라도 다른 약물로의 대체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 전문 재활병원 및 예방사업기관의 부족

청소년이 일단 약물이나 유해 화학물질에 중독된 후, 치료를 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전문 재활병원도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의료보호법 제12조 제1항의 경우 범죄 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킬 때,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경우 보험 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범죄행위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의 의료혜택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 외에도 현재 청소년육성위원회 산하 「청소년육성 실무위원회」에 ‘청소년 약물남용대책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청소년 약물남용의 예방 사업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 담당할 기구로서는 부족하며, 청소년 약물남용의 폐해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인 통계도 미비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쉽게 약물을 구입할 수 있고, 일단 중독된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도와 줄 전문 재활병원도 전무한 실정이다.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환경 조성 및  
남용자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재활,  
홍보 및 계몽활동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 4. 개선대책

청소년 약물남용 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약물남용과 비행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독자들에게는 적절한 치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약물남용자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재활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홍보 및 계몽 활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 선정적인 외화의 수입 추천을 자제하고 방송 프로그램, 스포츠 신문, 잡지 내용에 대한 자율 심의를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며 본드, 부탄가스 등의 포장에 흡입시나 환각 목적으로 제공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경고문을 추가코자 한다.

둘째,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활성화하여 청소년 약물남용 상담소를 7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상담요원을 약사회의 자원봉사자에서 전문상담가로 대치코자 하며, VTR 등 시청각 교재를 제작, 보급하고 약물남용 취약 계층(청소년,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등산로, 해수욕장, 학교 주변 등지에서의 각종 캠페인 전개를 활발히 하고 지역내 청소년 관련 사회 단체(라이온스 클럽 등)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약물남용 퇴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를 위해 TV, 라디오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주로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내용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유흥업소의 업주 중심으로 행해지던 약물남용 예방 교육을 종사자에까지 확대코자 한다.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조사를 위해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학적 지수를 파악, 남용 방지 정책 수립에 활용코자 한다.

---

넷째, 사회적인 분위기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약물남용 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96년에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약물남용 내용을 반영하여 '97년부터 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생활지도 교사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약물남용 예방 교육을 일반교원 연수시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섯째,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재활을 위해서 수도권 경기 지역에 200병상 규모의 전문 치료 센터 건립을 추진코자 하며 각 시·도별로 청소년 약물남용 치료·재활 병원으로 국립 병원 20개 및 민간 병원 10개를 지정·운영한다.

여섯째, 청소년들이 남용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 현기, 몽롱 등 부작용이 있는 약품(진해거담제,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 환각작용이 있는 약품)을 특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든지 필요한 경우, '95년에 한국, 브라질, 프랑스, 이태리 등의 남용 사례를 반영하여 지페프를 제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예와 같이 UN과 협의하여 남용 대상 약물을 향정신성물질로 지정, 규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 약물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가정, 지역사회와 학교가 긴밀히 연계하여야 하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5. 결 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 약물남용 방지 정책은 다양하며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고민을 덜어주려는 부모의 노력, 화목한 가정의 유지와 철저한 가정 교육의 실시이다. 많은 경우 비행은 저지르고 약물에 탐닉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결혼 가정 출신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의 관심과 분위기 조성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 되고 있는 입시 등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도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마약 등 약물 대책을 위하여 지역 사회와 학교가 긴밀히 연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좋은 예를 우리도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